

01 교회소식

생명의 빛을 밝히는 우림북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역사 이뤘다는 우리 교회 우림북이 '2012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해 다국어 저서와 전자책을 홍보했다.

02 생명의 말씀

네 소견에 선한 대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으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상대에게도 끝까지 감동적인 선을 행했다.

03 기획특집

불순종의 원인은 무엇일까?

불순종의 유형을 살펴봄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불같은 기도를 통해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 순종의 사람이 되자.

04 간증

하나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

주님을 만나 영육 간의 상처가 치유된 페루 캘리 성도와 하나님 역사로 부추 농장에 해갈의 단비가 왔다는 송원규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539호 2012년 7월 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책을 펼치면 미래가 보인다

2012 서울국제도서전 우림북 참가, 이재록 목사 다국어 저서 475종 전시



2012 서울국제도서전이 '책을 펼치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0일부터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도서전에는 20개국에서 580개 출판사가 참가했으며, 올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빈국으로 참여해 아랍의 출판 문화를 선보였다. 이 가운데 전 세계 영혼을 아우르는 다국어 출판에 힘쓴 우리 교회 우림북도 참가해 많은 출판인을 놀라게 했고, 우림북 부스에는 소냐 산티아고 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국내외 수천 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루었다.

다국어 출판 흐름을 주도하는 우림북

우림북은 온 누리에 참 빛을 비추고자 '우림'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서적을 발간

하는 것은 물론 다국어 출판으로 전 세계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왔다. 신앙서적은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으로 스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또 읽을 수 있고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선교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재록 목사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발간을 시작으로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지옥』, 『깨어라 이스라엘』, 『주님의 자취』, 『일곱 교회』, 『사랑은 율법의 완성』 등 많은 책자를 발간한 우림북은 이번 도서전에 한국어 책자 79종, 40개 언어로 번역된 다국어 책자 194종, 32개 언어로 된 전자책 201종을 비롯해 오디오 북 1종을 전시했다.

33개 언어로 발간된 『십자가의 도』

우림북 부스는 빛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흰색과 근본의 빛을 의미하는 아름다운 색으로 제작됐으며, 전 세계 유통 및 번역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몄다.

부스 중앙에는 74개 언어로 번역 중인 다국어 저서 현황판과 33개 언어로 발간돼 전 세계 만민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한 『십자가의 도』를 전시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특히 15개 언어로 발간된 『지옥』 책자는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모았으며, 전자책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코너도 관심을 끌었다.

인도 국립도서재단 쿠마르 비크람 편집인은 이재록 목사의 저서가 많은 언어로 번역된 것에 감탄하며 '2013년 뉴델리국제도

서전에 우림북이 꼭 참가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야로슬라브 올샤 주한체코대사와 이배너 바즈더차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체코어과 교수는 "한국에서 체코어로 번역, 출간됐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부스에는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대만, 인도 등에서 온 해외 출판업자 외에도 국내 디자인 및 인쇄, 출판 관련 업체들이 찾아와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도서전 참가를 계기로 우림북은 국내외 출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아동과 학생, 초신자와 비신자를 위한 책자 발간에도 힘쓰며 다국어 출판과 전자책, 오디오북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통해 세계 선교의 미래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네 소견에 선한 대로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겂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무엘상 24:4)

바로 이때 다윗이 싸움터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듣고 분개해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 17:45)라고 고백하지요.

다윗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도 두려워 떠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에 적중해 골리앗은 제대로 칼 한 번 휘둘러보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실 때 어찌 기쁘지 않으시겠고 사랑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2. 끝까지 선의 마음을 지닌 다윗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하자 사울 왕은 매우 기뻐하며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들을 환영하러 나온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 18:7) 노래했지요. 사울 왕은 심히 노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삼상 18:8) 하고 그 날 후로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사울의 시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던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이것을 피하게 하시니 사울의 시기와 두려움은 더욱 커졌지요. 이에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울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차게 하리라”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꾀계를 부립니다(삼상 18:21).

다윗은 소년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위해 싸웠고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운 충신입니다. 사울이 악신에게 고통을 받

을 때에는 수금을 타서 마음에 평안을 주었고 신하로서도 왕인 사울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의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방 땅을 전전하며 갖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쫓겨 다니던 다윗에게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던 사람들은 사무엘상 24:4에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곳까지 이끄신 것은 다윗에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니 사울을 죽이는 것이 선한 일이라 말하지요. 다윗은 사울이 자는 동안 가만히 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조차도 다윗은 마음에 찢려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와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와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삼상 24:6) 하고 사울 왕을 해치지 말라 명했지요.

사울이 굴에서 나아와 갈 길을 갈 때 다윗이 멀리서 사울을 부르며 땅에 엎드려 절하고는 이렇게 고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겂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삼상 24:11)

이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중심에서 사울을 공경하고 아버지께 대한 그 예를 갖추고 있으니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3. 다윗이 연단을 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윗의 그릇됨을 아시고 그를 더 큰 인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

다. 그가 왕이 된 후 밋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온전하지는 않았기에 그만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왕의 권세라면 그 정도 일은 관대히 보아 넘길 수도 있다 생각한 것이지요.

이런 다윗에게도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 밋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온전하지는 않았기에 그만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왕의 권세라면 그 정도 일은 관대히 보아 넘길 수도 있다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온전한 선의 마음을 원하셨고 그로 인해 그는 엄청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 다윗은 쫓겨 도망가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지요. 또 시므이라 하는 사울 족속이 다윗에게 나아와 저주하고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단 속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마음을 이룰 수 있었고 이후로 더 하나님 사랑과 백성의 사랑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가 영영히 있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후손으로 나시리라는 축복의 말씀까지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겂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재돼 있는 악의 근본까지 뽑아 버려서 중심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겂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었기에 거듭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 왕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상대를 감동시키며 변화시킬 수 있는 선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다윗은 이새의 여덟 아들 중 말째로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요. 어느 날 하나님 지시를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를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하시며 이새의 아들 중 가장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소년 다윗이 하나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이유는 마음과 중심이 참으로 선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다윗은 어떠한 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을까요?

1.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다윗

사무엘상 17장에는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대결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서 이방 족속 블레셋과 서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으로 인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미터에 가까운 거인으로 놋 투구와 갑옷, 놋 단창으로 무장한 용사였습니다. 그가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큰소리를 치는데도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두려워 떨 뿐이었지요.



- 교회 버스 (교회 차량 / ☎ 02) 818-7391~5) 주일·공휴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지역(번 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대/연희대역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663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 만민중앙교회 | |
|--------------------------|----------------------------|
| 주일 대예배 | 1부 10:00 AM 2부 11:30 AM |
|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 9:00 PM |
|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 11:00 PM |
| 주일 저녁예배 | 3:00 PM |
| 금요일예배 | 11:00 PM |
| 수요일예배 | 7:00 PM |
| 화요일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 8:00 PM |
|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 9:00 PM |
|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 4:00 PM |
| 토요일예배 [아동부] | 3:00 PM |
| 다시·일월야 기도회 |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
| 새벽예배 |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유료로만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7가지 불순종 유형과 순종의 비결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 풍요로운 에덴동산에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다.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해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어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기 위함이다. 따라서 순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의 결과는 축복이지만 거역된 삶의 결과는 재앙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의 삶 속에서 불순종하는 이유를 깨달아 참된 순종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
(삼상 15:22~23)

1 자기 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순종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윗사람이 무엇을 지시했을 때 비록 순종할 마음이 있다 해도 그 지시사항을 이행할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서 결국 불순종을 낳게 되는 경우이다. 혹 지시한 사람의 기대에 너무 미치지 못할 것을 알기에 아예 시도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족할지라도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 한계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려는 순종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불순종하는 경우

이 경우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것이므로 자기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불순종의 결과를 낳는 것보다 더 악한 마음이다. 이런 사람은 행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시나 명령받기를 싫어한다. 또한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서서 하면 불순종이 될까봐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거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혼날 일도 만들지 않으며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게으름을 버리고 힘써 노력하며 배워야 한다.

3 자기가 하지 못하니 그대로 일을 멈추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

이런 사람은 순종할 마음이 없을 뿐 아니라 책임감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윗사람의 지시사항이나 그 목적된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즉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이 주어졌을 때 잘하는 사람에게 조언이나 협조를 구하거나 더 잘하는 사람에게 공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욕심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결국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 함께 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4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죄를 회개하도록 외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요나는 죄악으로 관영된 적국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갔다. 이처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과 어려움을 계속 받게 된다. 하나님 뜻이라면 자신이 보기에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것을 접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5 자기 생각에 맞추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으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과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 등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는 등 자기 생각에 맞추어 행동하므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악, 곧 욕심이나 사심, 정욕으로 인해 짐짓 하나님 뜻을 알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며, 하나님 영광을 크게 가리는 것임을 깨달아 이내 돌아켜야 한다. 만일 돌아키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추어 일을 계속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며 구원도 받을 수 없다.

6 자기 감정에 거슬리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자 가롯 유다는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않느냐고 말한다. 이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기 감정에 거슬렸기 때문이다. 가롯 유다는 계속 불순종을 낳아 결국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팔아넘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악 중의 악이요, 돌이킬 수 없는 불법이기에 비록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결국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감정 곧 험기, 시기, 서운함, 분냄, 다툼 등을 버려야 한다.

7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체가 없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전혀 없으니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경우이다. 교회에 나온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아예 믿지 않거나 그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어떤 형태에 해당되든지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면 내 안에 진리만 남게 되므로 순종이 따르게 되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불같은 기도를 통해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로부터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참된 순종에 이를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프로그램 July GCN Programming Guide

| | | |
|---|---|--|
| <p>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계명 4-8 - 천국 40-44 - 믿음의 분량 20-24 - 사랑장 15-19 |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진 목사의 '육과영 2-5' - 정구영 목사의 '십자가의도 3-6' - 이미영 목사의 '고운마음' - 김수정 목사의 '마음가짐' | <p>찬양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CN파워프레이즈(2) 6-10 <p>GCN 특선명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계 1,2부 |
|---|---|--|

“알알이 익어가는 포도처럼 우리의 믿음도 탐스럽게...”
GCN이 준비한 충만한 프로그램으로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보내세요!

24시간 연중무휴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및 A/S 문의 1577-2073



“악몽과 우울증으로 괴로웠던 날들... 이제는 주님 안에서 행복해요”

켈리 에스코바르 알자모라 (페루만민교회)

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외도가 심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아야 했던 저는 이들의 학대로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야 했지요. 친척집에 얹혀 식모살이를 하며 근근이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의 마음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게다가 11살 때 가까운 친척에게 성추행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두려움에 혼자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시 제 방으로 들어와 성추행을 할지 몰라 불안에 떨며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요.

저는 매일 악몽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와

남자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국립경찰학교에도 합격했지요. 하지만 악몽은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성당에 다녀 보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삶이 버겁고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우울증까지 걸려 혼자 방에 틀어박혀 슬픈 음악을 들으며 자신을 학대하고 고통을 가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경찰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과중한 업무와 사람들과의 관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 증세가 더욱 심해졌지요.

2011년 10월 어느 날, 페루만민교회 성도인 상관이 함께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었지요. 화상을 통해 서울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페루만민교회 ‘목요성령충만기도회’에서 성령 체험을 했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 설교를 통해 큰 깨우침이 됐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도’ 설교는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미움과 분노,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또한 마음속에 이러한 악을 품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

리인지 알게 해 주었지요. 저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눈물로 회개하며 악을 버리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 후 제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로 용서하고 마음에 가득한 분노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 놓게 됐지요. 기쁨이 샘솟으며 더 이상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슬픈 음악보다 은혜로운 찬양 듣는 것이 행복했고, 세상 것들이 싫어졌습니다.

요즘 저는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사고의 틀이 깨어지고 긍정적 사람이 됐으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더니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사랑과 인정을 받고 물질 축복도 넘치게 받고 있지요. 지난 5월에는 만민중앙교회 이수진 목사님이 페루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실 때 근접 경호를 맡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했습니다.

저는 경찰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많은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 그들이 저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또한 페루 만민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페루 영혼이 구원에 이르러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큰 비로 부추농장 가뭄이 해결됐습니다”

송원규 집사 (3세대 26교구)

저는 경기도 양주 시에서 약 3천 평 규모의 부추 농장(무지개 뜨는 농장, 2006년 정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전국적 심한 가뭄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저의 농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비 소식 있을까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며 애다는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감감 무소식이어서 농사를 망치는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농산물은 상품성과 출하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부추 잎 끝 부분이 누렇게 변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약 1,700만 원의 손해를 볼 상황이었지요.

더구나 저희 부추는 친환경으로 재배한 영양부추이기에 농협, 생협, 봄여울, 초록마을, 한국유기농협회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1개월분의 부추가 비축돼야 공급이 원활한데 고작 1주일분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

만일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면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고 친

환경 부추를 선호하는 많은 분에게도 죄송한 일이나 아주 절박한 심정입니다. 저는 그동안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아왔기에 천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6월 8일 금요일, 교회에서 당회장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셔서 부추 생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적고 믿음으로 기도받았습니다.

다음날인 9일 새벽, 금요철야예배를 마치고 농장에 도착해 보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농장 주변에 가뭄이 해결될 정도로 큰 비가 내린 흔적을 볼 수 있었지요.

“아버지, 비가 왔네요, 언제 비가 왔어요?”



“어제 오후 4~5시경 많이 왔단다. 올해 들어 가장 큰 비가 온 것 같구나.”

전국적으로 계속된 가뭄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장 주변에는 많은 비가 내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 | | | |
|---|--|--|---|--|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 안산만민교회 경기도 안산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미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3196-3927 |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 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67-4 ☎010-6355-1928 |
|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ભ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 사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223-0271, 010-7733-1327 |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841-3790, 010-6334-7750 |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사거리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 강원지성전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총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영로 28번지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 |